



六禮 문답

여섯가지 생활 예절에 관한 것이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는대로 대답해 드립니다.

우제虞祭란, 삼우제三虞祭란 무엇인가

問 요즘 장사를 지내고 나면 대개 삼우제란 것을 지냅니다. 장사하고 사흘째 되는 날 지내는데, 그 이름을 ‘삼우’라 하는 것은 셋째날의 뜻이 아니라 세번 지내는 제사라는 뜻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삼우제란 장사지내고 사흘째 한번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세번씩이나 지내는 것인가요? 세번 지낸다면 언제언제 지내는 것인가요? —— 窮問子

答 삼우제三虞祭는 세번 지내는 제사이고 그 세번째 지내는 것을 삼우三虞 또는 삼우제라 합니다. 처음 지내는 것이 초우初虞이고 두번째 것이 재우再虞, 세번째 것이 삼우三虞이며 이를 우제虞祭라 하거니와 달리 세번 지내는 우제라 해서 삼우제라 합니다. 사실 옛적에는 우제와 초우·재우·삼우라 하였지 ‘삼우제’란 말은 없었습니다. 초우·재우를 초우제·재우제라 하지 않았듯이 삼우에도 ‘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3자를 합칭할 때도 우제라 하였지 ‘삼우제’라고 앞에 ‘삼’을 붙이지 않은 때문이었습니다. 초우는 장사하는 날, 그날을 절대 넘기지 않고 지내니 대개 저녁 제사가 되었습니다. 재우는 초우를 지낸 뒤의 첫 유일柔日에 지내되 그 새벽이 밝아오는 절명質明에 행사합니다. 유일이란 ‘부드러운 날’의 뜻인데 간지의 10간干에서 짝수, 즉 음陰에 해당하는 을정기신계乙丁己辛癸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초우, 장사일이 강일剛日이면 재우는 바로 다음날이 되지만, 초우가 유일이면 하루 건너 사흘째가 되겠습

니다. 강일이란 양陽, 즉 홀수의 날이고 10간의 갑병무경임甲丙戊庚壬이 들어가는 날입니다. 삼우는 재우 다음의 첫 강일이니 재우를 유일에 맞춰 지냈다면 바로 그 익일이 됩니다. 그러니 삼우가 장사 사흘째 되는 날에 지낸다는 것은 꼭 맞지 않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초우를 강일에 지내서 재우·삼우가 바로바로 다음날로 이어진다면 삼우는 장사 셋째날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초우를 유일에 맞았다면 재우가 다음 유일을 맞느라 하루 건너뛰므로 자연 삼우도 하루 늦어져 나흘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를 때까지 발인제發靱祭나 노제路祭·제주제題主祭(성분제成墳祭) 등으로 말하는 것이 사실은 다 전奠이고 제사가 아닙니다. 전은 잔을 한번만 올리고 제물도 갖은 제물을 갖추지 않으며 읽는 축문은 고사告辭이지 축祝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제가 되면서부터 갖은 제물을 베풀고 술을 석 잔 올리는 삼헌三獻을 행하며 축도 앞뒤를 갖추어 지어 낭독합니다.

우虞라는 글자에는 대개 20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가운데 ‘염려한다’는 것과 ‘편안케 한다’는 뜻을 여기에서 취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염려스러워 편안케 하는 제사’의 뜻이니 흔히 우제를 ‘안신安神의 제사’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안신은 신을 안정시키는 것이니까요. 부모의 체백體魄을 땅에 묻고 왔으니 자식으로서 좌불안석이 됩니다. 혼천백지魂天魄地로 영혼은 승천하고 체백은 지하에 든 망자도 안정을 못하여 방황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과 넋을 위로해 안정시키는 진혼鎮魂의 제사를 한번으로 부족하고 두번으로도

서운해 삼세번을 지내는 게 삼우입니다. 옛적에 갈장渴葬이라 한 3일장을 서둘러 치르게 된 요즘도 바쁜 탈상을 위해서라도 삼우제는 지내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후한말 학자 정현鄭玄은 ‘골육귀우토 혼기즉무소부지 효자위기방황 삼제이안지骨肉歸于土 魂氣則無所不之 孝子爲其彷徨 三祭以安之: 골육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혼기魂氣는 가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효자가 그 방황하는 것을 생각하여 세번 제사지내 안정시킨다’ 하였습니다. 주자朱子는 ‘장사지내기 전에는 전奠을 올리고 제사는 지내지 않으므로 단지 술을 따라 올리고 찬饌을 진설하여 재배한다. 우虞에 비로소 제례를 쓰고 졸곡卒哭은 길제라 한다’ 하였습니다.

초우는 반드시 장사날 중으로 지내니 대개 저녁때가 됩니다. 장지에서 반흔返魂해 오는 길이 멀어 도중에 숙박하게 될 때는 그 숙박처에서 지내되 날은 넘길 수 없습니다. ‘예기禮記’의 ‘단궁檀弓’에 ‘장일에 우虞를 하는 것은 차마 하루도 멀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날에야 전奠(산 자에게 행하는 예)을 우虞(죽은 자에게 하는 제례)로 바꾼다’ 하였습니다. 부득이 숙박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이는 신주神主, 즉 영혼을 편히 모시는 도리가 아니어서 되도록 경숙經宿을 피하고자 하관下官하고 엄광掩壙으로, 흙으로 관곽을 덮으면 제주題主(신주를 씌)를 하여 이를 모시고 돌아오는 반흔을 서두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왜곡시켜 반흔을 늦추면서 차꾸 성분成墳이 되고 산역山役이 마무리되기를 미적거리며 기다리는 상주와 상제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초우를 지내려면 상주 이하가 모두 목욕을 하는데 이는 초상이 난 후 유월장逾月葬 또는 삼월장三月葬 등으로 몇 달이 되었다라도 처음으로 할 수 있게 되는 목욕입니다. 목욕은 하되 머리를 빗질하지는 못하고 또 너무 늦었거나 반흔하는 도중에 행사할 때는 깨끗이 씻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제물은 은전殷奠, 즉 갖은 제물을 진설합니다. 이때의 제물은 일반제사의 기준제물과 같아서 과실은 시과時果(본디 제철의 실과)로서 4기 이상을 쓰고 포·식혜·숙채熟菜(익힌 나물)·초채醃菜(절인 나물)·침채沈菜(김치)·청장淸醬(맑은 초간장)·어해魚 또는 육해肉 각 1기를 씁니다. 어육魚肉(생선과 고기)도 각1기를 쓰는데 탕湯(찌개)이나 효(안주)·헌軒(크게 찢은 고기) 또는 회膾를 만들어 놓습니다. 병餅(떡)·밀蜜(꿀)·면麵(국수)·반飯(밥)·갱羹(국)·적炙(구운 고기)을 1기씩 씁니다. 젓상에 쓰이는 빈그릇으로는 잔반盞盤(술잔과 받침)과 시접盞(수저와 그 접시)이 있습니다. 술병과 숙수熟水(송농)가 준비되고 놋쇠 유향로鑪香爐와 나무 향합香盒·촉대燭臺·모사茅沙(그릇에 백토를 담고 락을 묶어 심은 것)가 준비됩니다.

젓상은 석 자 높이로 영좌靈座와 높이가 같은데 일반에서 형편상 낮은 상을 쓰고 영좌도 낮게 모셨습니다. 조그만 칠탁漆卓(옷칠 탁자) 둘을 젓상 앞에 따로 놓고 거기에 술병과 축판祝板 등을 놓으며 향로와 향합을 놓은 작은 탁자 향안香案이 제상 정면에 놓이는데 제상보다 조금 낮은 높이입니다. 제주祭酒(헌작할 때 술을 조금씩 지워 붓는 것)할 때 쓰는 모사그릇은 향안 앞



심가 冥福을 빕니다



권용목 뉴라이트 신노동연합 상임대표가 2월 13일 밤 11시 경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였습니다. 향년 52세. 노동운동관련 책 발간을 위해 열혈동안 쉬지 않고 작업하다 타고 다음 날에 신노동 워크숍 도중 쓰러졌으며 장례는 애국시민사회장으로 2월 17일 발인하여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갑산공원묘지 라자로동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유족은 미망인 사경애에 아들 구훈·구암입니다. 고인은 1987년 현대엔진 노조 초대 위원장,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으로 노동운동에 앞장서 왔으며 1987년에서 1994년 동안 노동운동 관련 사건으로 4차례 구속되었고 2006년 뉴라이트신노동연합을 창립,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대표를 맡아 왔습니다.

권유택權裕澤(시조후 35세·추밀공과 정헌공·화산부원군계 부정공副正公 16대종손)씨가 2월 6일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자택에서 가까운 일산백병원에서 급환투병 1월여만에 향년 63세로 별세하였습니다. 씨는 정헌공종회 총무 재임중이었고, 모두 미취인 1남 3녀 중 사자嗣子는 호영鎬榮이고 2월 8일 경기 장단군 군내면 점원리 선영산에 안장되었습니다.

바닥에 놓습니다. 영좌 뒤에는 병풍을 치고 그 앞은 청사장靑沙帳(푸른 깃 휘장)으로 가리는데 깃이 귀하던 시절 삼베 휘장으로 대신했으며 바닥에는 청선靑 (가에 푸른 선을 두름)의 화문석花紋席을 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영좌를 모신 곳을 궤연 筵(신주 책상을 대자리에 베풀었다는 뜻)이라 하는데 대개 공간이 너르지 않은 한결이나 가옥의 별당같은 데일 수가 있으며 흔히 상청喪廳이라고도 부릅니다. 궤연이 너르지 않으면 제상을 청사廳事나 당 또는 정침正寢(안방)에 차리고 출주出主(사당이나 궤연에서 신주를 모셔냄)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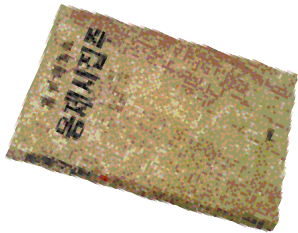
이처럼 우제는 모든 제사의 전형이자 시작이기 때문에 행사의 첫 단추와 같다 할만큼 막중한 것이었습니다. 재우와 삼우는 초우와 달리 새벽에 동이 틀 무렵인 궤명厥明에 나물과 과실을 먼저 진설해 놓고 조금 날이 밝아지는 절명質明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예법은 물론 초우와 똑같습니다. 재우와 삼우를 지내고 나면 음복飲福 겸 아침을 먹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서는 주인 이하 상제가 대개 성묘를 갑니다. 장례날 반흔을 해오느라 서둘러 돌아왔기 때문에 묘소가 어떻게 다스려졌는지 알 수 없어 이때에야 비로소 상장을 짊고 줄줄이 묘소에 올라가 구슬피 곡하며 두루 살피고 돌아오는 게 전래의 풍습이었습니다. —— 弔雲齋

상세한註解의완역판

原文 띄어쓰기新조판에인명·지명·사물 색인

응 제 시 집 주

應 制 詩 集 註



權 近 原作
權 攄 集註
權 光 旭 譯註

신국판 352면 • 값 15,000원

《陽村會報》에 95년부터 98년까지 4년에 걸쳐 연재한 노작의 역주문을 모아 다시 교열·수정하고, 완전히 띄어쓰기를 하여 새롭게 조판한 원문과 인명·지명 및 사물 색인을추가하여 한권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應制詩란 옛날 중국 황제의 명에응하여 지은 시란 뜻이며 조선 개국초에撰表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陽村이 明에 사신으로 가 太祖朱元璋을 전대하여 이를 해결하고 시문을 주고 받음으로써 老實秀才라는 칭상까지 받았는데 이 시집에는 양촌이 명 태조에게 지어 올린 24수의 시와 황제가 직접 지어양촌에게 준 3수의 시 및 중국 문인들의 응제시와 序跋文 등이 실리고 거기에 양촌의 손자 所關堂 權攄의 방대한 분량의해석과 集註가 첨가되어 한권의 책을 이룬 것입니다.

해돋이 서울 종로구 필운동 288-1 전화 (02)734-3085 전송 (02)738-8935